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24-5차)

1. 회의 개요

안건명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일시	2025. 1. 15.(수) 10 : 30	장소	기획처장실
참석위원	8	불참위원	1
참석현황	○참석위원 : 고동원, 박중철, 박혜훈, 이신구, 이승희, 이승연, 김금태, 노남철 ○불참위원 : 서하은		

2. 회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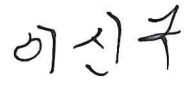

가. 참석 인원 보고 : 간사

-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였고,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나. 기도 : 박혜훈 위원

다. 위원장 호선

- 서장희 간사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장 의장 등)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겠음. 호선의 절차는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고, 위원의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음. 복수의 추천인 경우 다수결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학생이 아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 이신구 위원 : 고동원 위원을 추천함

간서명란	성명	박중철	이신구	노남철
	서명			

- **서장희 간사** : 더 이상 추천인이 있는지 묻고 없으므로 단독 추천인 고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사항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라고 하시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동원위원으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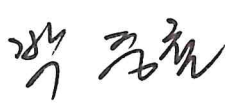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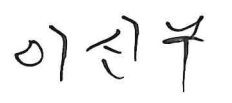

라. 위원장 인사

- **고동원 위원장** : 2024-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며, 금년도 첫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눔.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포함.




마. 안건 심의

- 의안번호 : 등록금심의위 2024-5
- 안건 :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고동원 위원장** : 금일 심의 안건인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사에게 요청함
- **서장희 간사** : 미리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함
 - 대학등록금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와 우리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음
 - 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법정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부 공고 제2024-450호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의거 2025학년도 대학의 등록금은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이하로 법정 상한선이 정해졌으며,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하는 대학임을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성명	박중철	이신구	노남철
간서명란	서명			

-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은 학생, 학부모 경제 부담을 고려하는 고객관점, 대학 발전 장기계획 등을 고려하는 지속 성장 관점, 물가, 여론등을 고려하는 사회 경제적 관점의 3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등록금 책정 고려요소인 최근 등록금 인상율,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을, 등록금 대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함
- 등록금 책정(안) 검토 결과 소비자물가인상,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 증가, 정책사업 추진 및 기본 운영비 증가, 최근 5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고, 2025학년도에는 최대 5.49% 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함
- 우리대학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2012년도에는 평균 5%의 등록금을 인하 한 바 있음. 2013학년도의 등록금도 0.55%의 등록금을 인하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음.
- 높은 물가상승율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의 증가, 재학생들의 경상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1안은 5.1%인상과 제2안은 동결로 제시함
- **고동원 위원장**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함. 또한 국가장학금 1유형이 8분위부터 9분위까지 확대되고, 총 금액도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
- **서장희 간사** : 교육부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 판단에서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90% 이상을 지원하면 2유형 지급도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다고 설명함
- **박중철 위원** : 등록금 수입이 25학년도에 4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하니 대학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함
- **이신구 위원** : 최근 뉴스 등을 통해 25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고, 실제 작년에는 전문대학 중 18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대학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
- **이승연 위원** : 등록금이 인상되어 10억 4천만원의 수입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는지 궁금하고, 장학금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물어봄

	성명	박중철	이신구	노남철
간서명란	서명			

- **고동원 위원장** : 우리대학은 타대학에 비하여 교내장학금 비율이 비교적 높고, 실험실습비는 1인당 10만원 정도 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또한 국고사업인 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실험실습비와 환경개선비 등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서장희 간사** : 등록금이 인상되었다고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작년 예산대비 등록금 수입은 40억6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상당부분은 운영 경비로 사용하겠지만,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또는 수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에는 예산 삭감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함
- **김금태 위원** :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은 1개년만 미지원되는지 아니면 계속 미지원인지 물어봄
- **서장희 간사** : 등록금을 인상하는 해당 1년만 미지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지원 가능하다고 말함
- **이승연 위원** : 학생들은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교하며, 수업은 똑같이 받는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말함,
- **노남철 위원** :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겠지만, 어떤 혜택이 추가로 받게 되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말함
- **김금태 위원** : 나는 세무사이며 외부전문가로 참석하였는데, 학생들의 입장과 학부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함. 다만, 대학의 교육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함
- **서장희 간사** :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교육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동결하였지만 대학의 한계상황임을 다시 설명함
- **박중철 위원** : 25학년도에는 1안인 5.1%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함
- **고동원 위원장** : 등록금의 인상으로 학생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학생위원이 합의한다고 표현함
- **김금태 위원** : 박중철 위원의 동의에 재정함

	성명	박중철	이신구	노남철
간서명란	서명	박중철	이신구	노남철

